

▶ 기조강연

## 식민지적 근대화와 '일상'을 지운 학문을 넘어서

조 한 혜 정

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 문화 인류학

“일상생활이라는 개념은 잔여적이다. 모든 분명하고 보다 우월하며 전문화되고 구조화된 행위들이 배제되고 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다”

- 앙리 르페브르 (1991)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회, 일상적 삶을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회를 '식민지적'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여기서 '식민지성'은 딱히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현상을 뜻하기보다는 지식과 삶이 겹도는 현상을 뜻한다.”

- 조혜정 (1992)

### 1. 왜 '일상성'인가?

“생활과학은 종합 학문이며, 실용학문이고, 실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 대상과 분야는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가족과 아동, 소비자, 자원관리, 의식주 분야일 터인데, 그동안 생활산업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해 왔다고는 하지만, 일상생활과 일상성에 대해 어떠한 성찰과 고민을 해 왔는지는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9차 학술대회를 여는 [대한가정학회]에 초대를 받고 나는 지금 그 학회의 역사성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홍형옥 회장의 '초대의 글'을 유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의식주, 가족과 아동, 그리고 소비생활이라는 매우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연구해온 학회 회원들에게 '일상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회장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고 회원들 안에서 상당히 공유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그 권유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일지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한 가지 단서가 보이긴 합니다. “생활산업분야에서 괄목한 기여를 해왔다”는 표현에 미루어볼 때 그간 생활과학은 삶의 포괄적 일상성이 아니라 ‘산업영역’에 더 비중을 두어온 듯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보자는 권유를 읽게 됩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서 궁금한 것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간 생활과학대학은 개인의 삶에 가장 가까운 분야를 다루면서 실은 산업계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 왔다는 말일 텐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취업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생활과학은 일상을 포괄적으로 연구해내야 하는데 그간 너무 좁게 학생들의 취직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만 해왔던 것을 반성하는 것일까? 그간 생활과학이 강조해온 ‘과학’에 대한 강박이 실제 삶을 이끌어내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학문적 도약을 하려는 성숙함의 표현일까? 아니면 근대적 학문체계 내 분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1980년대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일상성’ 논의가 좀 늦게 수입이 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대한가정학회]라는 학문 공동체에 속한 분들의 몫이겠지요. 제가 외부인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상성’에 대한 논의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출현했고 현대 사회 연구를 위해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일일 듯 합니다. 유럽에서 ‘일상성’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실증주의에 반한 현상학자들에 의한 ‘생활세계’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 영역이 아닌 소비사회와 여가활동을 연구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1980년대 들어서서 부상한 논의입니다.

현상학자들에게 실제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행위, 특히 그들의 사고방식을 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와 이데올로기, 법, 학교 등 제도 연구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현상학자들은 이를 ‘생활세계’ life world 라고 불렀는데 간단히 말하면 생활세계는 ‘삶과 관련된 일들 business of life’을 구조화 시키는 어떤 것을 지칭합니다. 비서구사회, 곧 근대적 형태의 제도화가 되지 않은 사회를 연구해온 인류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이 ‘생활세계’라고 부르는 현상을 ‘문화’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왔고, 현상학과 실증주의의 이분법을 극복해가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하버마스는 ‘생활세계’가 ‘체계’에 의해 식민화된 상황을 그리면서 ‘생활세계’ 논의를 대폭 진전 시킵니다.

이른바 ‘생활세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현상학적 전제를 가지고 질적 연구를 해온 학자들이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제도나 구조와 결과가 아니라 일상성과 문화와 관계와 과정입니다. 그리고 ‘물적 생산’보다는 ‘사회적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요. 사회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구조를 통해 전형화하는 현실로서 이를 통해서 사회적 현상이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파시즘 연구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불리는 일군의 문화연구자들은 파시즘이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강압에 의한

장치가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가족과 재생산 과정에 주목하지 않으면 파악될 수 없는 현상임을 강조합니다. 프랑스의 아날학파와 영국의 문화연구자들도 '일반 민중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제도가 아닌 '일상 문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68혁명 세대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제도의 역사'를 넘어, 일상성과 비공식성을 연결하는 문화연구를 발전시키는데, 미셸 푸코와 스투어트 홀 같은 연구자들이 그 대표적 연구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들은 두 주류적 연구패러다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하나는 연구의 검증에 치중하는 실증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거대 이론에 매몰된 비판 사회과학(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입니다. 이 두 캠프에 속한 사람들은 실은 매우 다른 성향의 연구자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가 제도들의 단순한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지요. 두 캠프 모두 이성, 합리, 계몽, 거대 이론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패러다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 '근대'에서 '후기 근대' 내지 '탈근대'로 접어든 상황을 살아가는 사회과학자들은 '근대형성'의 논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구조화된 행동들, 곧 교육체계, 보건체계, 경찰, 사법부, 그리고 다양한 정부기구 등과 같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구들이 '근대'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간 간과되었던 일상적 삶의 과정, 관계성, 개인의 욕망과 친밀성의 영역을 연구주제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봉건시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단일한 진리가 주창되고, 하나의 경전이 만들어졌고, 단일한 주체성을 갖는 국민주체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사회의 일면이었지 총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르페브르는 이 문제를 '일상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각시킨 학자입니다. 르페브르는 생활세계, 내지 일상성 개념은 잔여적인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근대적 인식체계에서 이는 모든 분명하고 보다 우월하며 전문화되고 구조화된 행위들이 배제되고 난 후에 남겨진 것들로 인지되거나 간과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남겨진 들이야말로 인간 생활의 원재료이며 일상성의 실체로서 이는 우정, 사랑, 유머, 놀이, 식사, 음주, 산책, 대화, 그리고 둘러보기 등의 행위로 구성된 것입니다. 실증주의 사회과학이나 비판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전제와 공리들과 대조적인 행위, 고질적 사고 습관과 행동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미셸 드 세르또도 근대 도시 문화를 연구하면서 일상생활이 가진 변두리를 강조합니다. 사회는 일상적인 인간 경험에 진지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관습과 제도로 구성되는데, 그 일상생활은 그 관습과 제도와 긴장 관계 속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상이함'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진행 중인 담론'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로젝 2002: 203) 이것은 개인들의 전략과 협상과 기억들에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후기 근대적 상황, 특히 소비자본주의화가 본격화 되면서 연역적으로 만들어진 '거대이론'과 '대서사' 시대에 종언을 고하게 되고 일상의 관찰을 통해 귀납적으로 만들어지는 '중범위 이론'과 미시 이론, 그리고 '작은 이야기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국민 내부의 통합보다는 내부 분화와 차이에 주목하면서 이 시대의 사회

운동은 '해방의 정치'라기보다 '생활정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현실의 다층성, 다중적 주체, 지식과 권력의 문제, 그리고 문화와 일상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그전의 학문세계와 비교할 때 상당한 발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불변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쓰지 않지 않고, 그냥 말을 건네듯 하는 것이라거나 이 글에 담긴 내용이 내 개인의 해석임을 강조하는 투로 서술하는 것은 이런 후기 근대적 학문하기의 방식에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적이고 또 초고속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진행오디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삶은 심하게 왜곡,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이혼 등 급속한 가정해체현상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해체현상은 바로 이런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근대'를 넘어서려는 후기 근대적, 내지 탈근대적 학문을 하려는 학자들은 일상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비와 여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더욱 거시 정치학을 벗어나 미시정치학 수준의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일군의 학자들이 전후 급격하게 부상하는 문화산업에 주목하면서 문화산업이 만들어내는 욕망의 구조와 소비사회의 '일상'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소비사회가 본격화되는 1980, 90년대에 학자들은 급기야 '사회의 죽음' death of the social 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Don Slater 1997). 제도가 문화를 압도하고 가상현실이 실재보다 더 실재적이 된 기술복제, 광고소비 사회의 속성상 대중은 소극적 소비자 and 관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제는 대중문화 조작에 의해 전세계 주민들은 게임, 스포츠, 팝 등 거대한 소비대중상품 문화 속에서 일차원적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창출하는 여가의 질과 변화를 다루는 전문가는 전무하다는 것이지요. 스펙타클한 것에 길들여진 대중은 더 이상 조정되지 않지만 저항적이지도 않고 늘 지루하고 무관심하나 소비에 엄청난 반응을 가지는 군중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스펙타클이란 크리스마스 시가행진, 영화, 스포츠 행사부터 열차 충돌 테러리스트들의 난동에 대해 세계 뉴스를 포함하며, 삶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진술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점점 더 단조롭고 움직임이 없고 소외된 것으로 경험됩니다. 진정한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의미 없어지는 세상에서 더 많은 기호와 의미를 받아들일 '자유 아닌 자유'를 누리면서 '극단의 수동성'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간 강화된 규율의 세상인 근대는 실상은 고질화된 파편화와 나르시즘적 개인화의 과정이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양산된 대중들은 고도관리기술이 만들어낸 현란한 스펙타클의 블랙홀로 조용히, 그러나 급속하게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젝 2002: 202-204) 이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것에 대해 선택만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객체화되어버리는 상황, 시간과 공간이 '조각화'되어버린 시대에서 '일상'은 지워져버립니다. 일상은 권태로운 것이고 탈출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인지되고 사람들은 '휴가'를 가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공통적 공동체가 소멸되고, 구매를 부추기는 대대적인 광고들이 사람들의 욕망을 제조하면서 일상을 지운 일상을 만들

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스펙터클한 쇼를 보면서 자신들이 벌여온 학예회나 파티를 시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가 이들의 일상을 구성합니다. 실은 거대 기업들의 현란한 광고와 문화상품들이 이들의 일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을 연구하려는 우리가 연구하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상품구매를 하고 싶어진 심리가 일상일까요? 기업들이 파악하고 싶은 일상의 일부, 소비자 심리를 파악해주는 것은 생활과학대학이 배출한 테크니션이 해낼 하나의 업무이겠지요. 그러나 학문으로서 생활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일상적 생활세계를 회복하는 일, 예를 들어서 다시 학예회를 부활시키고 광고에 의해 부추겨진 욕망이 아니라 통합된 자신 속에서 나오는 욕구를 읽어내는 일일 겁니다. 기든스는 이를 '자아성찰적 기획'이라고 부르면서 개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통한 생활정치를 통해 위기의 인류사회는 새롭게 비약을 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세계의 다원화 (피터 버거), 조각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를 수 있는 '일상' 또는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시대의 핵심적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일상적 삶을 다루고 있는 과학자는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 역사적 진행에 민감해야 하고, 동시에 소비사회와 대중매체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의 광활한 사이버 공간 상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압구정동 오렌지 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등장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2000년대 싸이월드는 제대로 주거공간을 갖지 못한 주변적 사람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여자들에게 "자기만의 방"을 제공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잘한 일상의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는 후기 근대의 '생활 정치적'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은 돈을 벌기 위해 기획된 기업의 상품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난 12세기 동안 '생산 자본주의'에서 '소비 자본주의'시대로, 그리고 '국민국가 중심 자본주의'에서 '다국적 글로벌 자본주의'로 급속하게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스타일의 시대라 불리는 것, 문화적 트렌드 읽기, 하이퍼 리얼리티와 초고속 사회의 '일상의 관리'에 대한 연구 작업들은 지금 시대를 알아낼 핵심적 작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사회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운전수 없는, 브레이크 고장난 차"로 비유되듯이 우리는 그간 매우 무모하게 진행되어온 근대기획의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성'은 바로 뒷마무리 작업을 위해 시대적 전환기에 대두된 개념이고, 일상성을 연구하는 생활과학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좁은 의미의 '과학'이 아니라 삶 전반을 읽어내는 학문으로 비약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 2. 왜 '식민성'인가?

“식민성이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탈식민화란 기존의 권위적 언설을 해체하고 식민지적 상태에서 심하게 타자화된 주체를 다시 타자화 함으로 새롭게 재구성해가는 것이다.”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중에서

그러나 이런 서구의 논의가 지금 한국의 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아닐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지식 생산의 식민성, 곧 '탈식민화'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5세기에 걸쳐 진행된 근대화의 결과이지요. 아시다시피 세계사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 과정이자 전지구적 규모의 식민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서구 제국들은 근대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정치형태와 산업자본주의적 경제제도와 기술적 군사체제를 갖추고 제국주의적 확장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자본주의적 확장은 실제 식민통치나 이주민 정책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회를 "근대기획"-산업자본주의화, 근대국민국가 형성, 그리고 근대적 군사체계 확립으로 집약되는 기획(기든스)-속에 편입시켰었지요.

외적 팽창으로서의 전지구적 자본주의화는 "식민주의", "新식민주의", "脫식민주의"라는 단어로 특징지어지는 세 단계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번째 식민주의 단계는 무력과 외교를 앞세운 직접적 지배의 단계였고, 신식민주의는 2차대전 이후 정치적 속국이었던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식민지들이 정치적 독립을 이루게 되면서 식민지시대 종식되리라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식민지 국가들은 식민모국에 경제적·문화적으로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근대 서구에 의한 동양사회 지배가 얼마나 철저하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지식생산 제도에 의해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제도의 재생산을 통해 정치적 독립 이후에도 계속 타자화된 상태를 재생산하게 되는지를 그의 기념비적인 책 『오리엔탈리즘』에서 여실히 밝혀준 바 있습니다. 동양은 동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인의 동양인식에 바탕을 둔 표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지요. 서구의 식민주의적 지배는 단순한 "이식" 차원을 넘어서 체계화된 지적 의존상태를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공동체적 공론화의 바탕을 상실한 식민지 주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언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삶과 말이 곁들게 되는 것이지요. 타자화된 상태에 있는 식민지 주민들은 소외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그 상태를 재생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식민지적 지적 생산체계를 만들었고 한번 만들어진 체계는 그 자체로 굴러가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일제 강점기 이전에 자생적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근대화"는 일제에 의한 식민화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근대사는

"식민주의적 근대사"로서 무력을 앞세운 일제정권이 근대적 통치기구를 정비하고 거대 공장과 초등학교를 지으면서 본격화되었지요. 근대화 초기부터 학문적 식민화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한국사회에는 근대화를 향한 강열한 열망 속에 휩싸입니다.

1945년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공주의와 반일주의가 거세게 일었고 이런 적개심의 다른 면은 숭미주의이었지요. 일제에 대한 적개심에 비례하여 "해방국"으로 비춰진 미국에 대한 전망은 높아 갔으며 이것은 단순한 정치선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의 구호물자로부터 시작하여 할리우드 영화에 이르기까지 해방정국이 불러일으킨 "아메리칸 드림"은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황폐한 삶을 살던 한국 국민 모두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식 근대화를 모방하게 되었고 미국적 삶을 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는 학문분야에서 미국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자생적 지식생산체제가 마련되기보다 '오파상/수입상'들이 학문을 주도하는 식의 식민성이 계속 유지되고 생성되어왔던 것입니다.

이 당시 형성된 숭미주의적 의식과 일제가 깔아 놓은 근대적 제도는 묘하게 결합하면서 남한사회의 사회구조, 그리고 학문체제로 정착하게 되지요. 학문의 기본이 되는 인식론적 가설과 준거들, 저자와 인용구들은 여전히 일본이 체계화한 서구 지성들로부터 오는 것이었으나 더 이상 일본을 거친 유학생이 아니라 직접 서구에 간 유학생 집단이 세력을 쥐게 되었고 이런 세력 전이는 자생적 학문풍토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적 생산체제는 서구 학문계의 아류이자 외부권위에 의존하는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외부 의존적 학문세계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보입니다.

첫째로, 자신들의 삶을 읽어내고 그를 바탕으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거대 이론을 절대시하고 숭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의 신봉자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학문공동체가 사회를 향해 열리지 않고 자체의 폐쇄성을 갖게 되면 그 구성원들은 제한된 자체 내의 부와 권력을 두고 일종의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활동은 사회 현상을 잘 읽어내고 현실 문제를 해결해가는 성과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데, 연구자들이 자생적 사회이론 만들기를 포기한 상황에서는 훌륭한 연구와 그렇지 못한 연구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대신 폐쇄적인 기득권 싸움이 주를 이루게 되지요. 교수 임용 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식의 고질적인 연고주의는 사실상 공식적 기준이 만들어지지 못한 시대의 유물이지요. 자체 내 지식 생산을 해갈 토대가 미약한 사회일수록 공식적 절차나 업적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비공식적 인맥이 작동됩니다.

이런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맥이며 권력에 대한 감각이지요. 자기 땅에서 태어난 저자에 대한 존경과 보호가 없는 상황, 학문 공동체의 공동 작업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지적 권위, 그리고 내부의 권력조직에 기댈으로써 더 많은 힘을 갖게 되고 연구비도 타게 되는 묘한 이

익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논문 심사 자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써서 일상을 연구한 논문을 두고 실증주의적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는데 이런 일은 사회학이나 인류학과 같은 기초학문에서보다 실용학문에서 더욱 자주 나타납니다. 실용학문에서는 일상을 즉각 즉각 제대로 읽어 내고 카피도 만들고 적용을 해가야 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더욱 잘 활용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내부 학자 공동체가 가진 현실에 대한 감각, 간주관적 이해와 감응적 개념의 유용성을 모른다면,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도 진실에 가까이 가는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생활연구란 불가능합니다. 학문계의 식민성은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통계적 연구만을 고집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서양의 지적 패권주의가 서구인 자신들에 의해, 그리고 비서구인들에 의해 해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 변혁운동이 일면서 실은 지적인 종속체계에 대한 반성이 일긴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미국을 겨냥한 감정적인 것이어서 새로운 풍토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거대담론이 주도하면서 개인이나 일상성, 그리고 자기성찰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금기였습니다. "大를 위해 小를 버려라. 조직을 위해 개인을 버려라"는 모토에서처럼 대의를 위한 삶이 일상을 눌러버리는 시대였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준비 과정에서 개인적 '삶'을 유보해야 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도 이들은 삶을 유보해야 했던 것이지요.

199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전통 문화"에 대한 탐구와 '자기 찾기'의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식민주의의 극복은 "민족문화" 라든지 "전통문화", 또는 "일제유산", "식민청산", "서구의 답습" 등과 같은 단어로 풀릴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가 가진 기본 전제와 언어가 이미 서구중심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이미 서너 세대를 거친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식민성의 극복은 단순한 의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토대를 바꾸어 가야 하는 작업이자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할 언어를 가지는 문제인데, 선불리 독립을 강조하면 "문화 본질주의"로 빠져 버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1980년대 후반 '신토불이'를 강조하던 사회 분위기가 바로 그 일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1990년대 들어서서, 경제사회문화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생적 학문의 토대가 깔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그림이 그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 highway)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간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민주화와 정보화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정보 초고속 도로망을 깔아 선진국이 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생각에 국민들과 기술 관료들은 그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깔린 세계화는 한국 주민들의 '문화적 지체'를 초고속으로 메꾸어 낼 것 같았습니다.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계통신망(World Wide Web)과 온라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혁명을 가져오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안방에 앉아서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최신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



고, 그래서 보다 분권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학문상으로도 서구 중심성을 탈피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 3.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삶 읽기, 속도전 속에서 새길 찾기

“스승이 없는 나는  
 식민지 지식인이다.  
 보편적 법칙에 매달리는 나는  
 식민지 지식인이다.  
 논문 끝에 붙은 참고서의 절반 이상이  
 꼬부랑 글자인 나는  
 식민지 지식인이다.  
 선배들의 눈치는 심하게 살피면서  
 그들의 학문적 노고는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나는  
 식민지 지식인이다.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믿는 나는  
 식민지 지식인이다.  
 내 삶을 이론화하지 못하는 나는  
 식민지 지식인이다.”

-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 읽기 1] 중에서

시장 중심의 세계화가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그런 낙관적 전망은 비관론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성' 연구를 하기는 점점 더 복잡하고 좋은 연구를 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쟁체제에 돌입할 준비를 한다면서 교육부는 대학들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세계 100위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지상과제가 된 이른바 일류대학들은 교수들에게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논문편수에 의한 양적 평가는 연구자들을 끝없이 바쁘게 만드는 한편, '권위 있는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실기 위해 그쪽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연구주제를 선정하게 되는 상황 역시 학문 풍토가 어렵사리 길러가려던 자생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변부' 연구자들은 다시 자신의 일상과는 무관한 주제, '그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학술지에 논문을 실는 테크닉들은 개발시켰지만 점점 더 깊이 있게 일상을 연구하고 자생적 이론을 만들어낼 엄두를 낼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영어권 주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권 주민들과 영어권의 식민지였던 곳들(인도, 홍콩 등)이 학계에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언어적 변수와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다.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오히려 이른바 선진국과 비선진국 사회간의 거리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 관리기회능력이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식민지적 지적 풍토는 이 면에서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10대에 치열한 입시제도교육을 통해 끈기를 가지게 되었고, 요약의 천재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수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능력은 기르지 못한 것입니다. 요약하는 것 이상을 해 내지 못한다면 정보홍수는 오히려 사람을 더 바쁘고 정신없이 만들 뿐이겠지요. 외부에서 오는 정보에 기대어 작업을 해 온 사람일수록 정보를 완결된 진리로 보는 경향이 있고, 정보를 제대로 요리할 줄 모릅니다. 정보를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정보홍수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아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그러한 선택권이 오히려 부담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20여년 한국사회는 어느 사회보다 압축적인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하드웨어 중심의 '토건적' 방식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래서 사회의 불균형 발전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일을 수준 있게 성사시켜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식 생산의 내적 체제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하지 않는 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의 정도는 서구사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심화될 것이고 그로 인한 갈등과 에너지 소모 역시 가속적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변화의 속도 자체가 실은 일상의 식민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딱히 한국이나 식민지였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지구상의 주민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상성 연구는 사회현상이 복잡화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동시에 더욱더 시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생활과학 전문가들이 다루었던 일상생활 영역은 사실상 기업과 자본에 의해 대거 잠식당한 상황입니다. 생활과학대학은 학생들을 그런 기업에 복무하는 전문직장으로 잘 길러서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기 근대적 지식인들이 원하는 사회가 일상생활영역까지 기업이 다 알아서 해주는 사회일까요? 그리고 그런 기업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졸업생들은 몇 년이나 버틸까요? 점점 더 회사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부품 내지 소모품으로 묘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후기 근대적 상황에서, 또 생활세계 자체가 붕괴하는 소비자본주의사회에서 그간 '가정과 일상적 삶의 영역'을 전담 연구주제로 삼아온 생활과학대 연구자들은 이제 이 학문의 역사성과 당파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벌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가정학회 멤버들이 담당해야 할 시대적 임무는 없을까요?

저는 지금 시대는 생활과학연구자들이 전문가specialist가 아니라 generalist가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국가적 경계가 무너지고 삶이 총체적으로 붕괴될 위험에 처한 시점에서 그간 해왔던 일을 고수하는 기술적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난 수 십

년간의 가정학과 생활과학의 역사를 통괄하면서 새로운 지식 생산을 해내는 지적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발상을 해내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며 실천적인 학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가정학회 회원들이 국가와 기업이라는 거대 공공영역에 완전 포섭되지 않고, 국민국가 시대의 학문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중 전략을 활용하면서 명실공히 글로벌 시대의 학문으로, 그리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학문으로 자신들의 자리 잡아 가기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압축적인 고도경제개발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은 젊은 시절에 일상적 삶을 저당 잡히고, 개인적 욕망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적 삶을 체험하고 읽어 내면서 사회구조와 연결시켜내는 능력을 계발하지 못한 것이지요. 일상성을 고려한 학문을 하려면 자신의 개인적 삶과 사회를 연결시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을 읽어 내는 것을 가르쳐 주는 선배도,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는 부모도 없었다고 느낀다면 그러한 인식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학문공동체를 만들고 일상을 읽어가는 언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학문공동체란 가치중립적인 단체가 아니라 구체적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공동체이며 그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지식/언어 생산 모임이니까요.

자신의 일상적 삶을 포착해내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객관적, 과학적, 총체적”으로 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공동체적 마음으로 “비관적이고, 생산적이고, 실천적”으로 읽는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어가야 할 때 이듯이 생활과학도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열어가 주면 합니다.

### <위 글과 관련해서 읽을 만한 연구서>

- 강내희 외 1992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현실 문화연구.  
기 드보르, 1996 (1967)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기든스, 안토니 1991 [포스트 모더니티] 민영사.  
1997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 새물결.  
로젝, 크리스, 2002(1995) [포스트 모더니즘과 여가] 일신사.  
르페브르, 앙리 1990 [현대 세계와 일상성] 박정자 옮김, 세계일보.  
벡, 울리히 1997 [위험 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보드리야르, 장 1991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사이드, 에드워드 1978 (1991)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아리에스, 필립 외 2005 [사생활의 역사] 3권 폴 벤느 엮음, 새물결.  
우에노 치즈코, 조한 혜정 2004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 나무.  
윌리스, 폴, 1989 [학교 현장과 계급 재생산] 민맥.  
윌리엄스, 레이몬드 1984 [문화 사회학] 까치.  
조혜정 1992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1- 바로 여기 교실에서]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1994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 각자 선 자리에서]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하버마스, 위르겐 2006 (1984) [의사소통행위이론] 나남.  
푸코, 미셸 1989 [성의 역사 1,2] 나남.  
Burger, Peter, 1974 *The Homeless Mind*, Penguin Books.  
Don, Sloter, 1997 *Consumer Culture and Modernity*. MPG Books.